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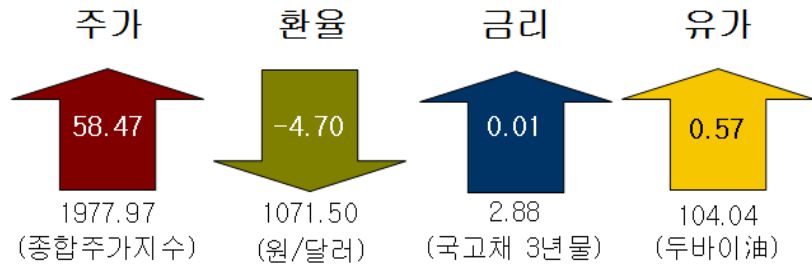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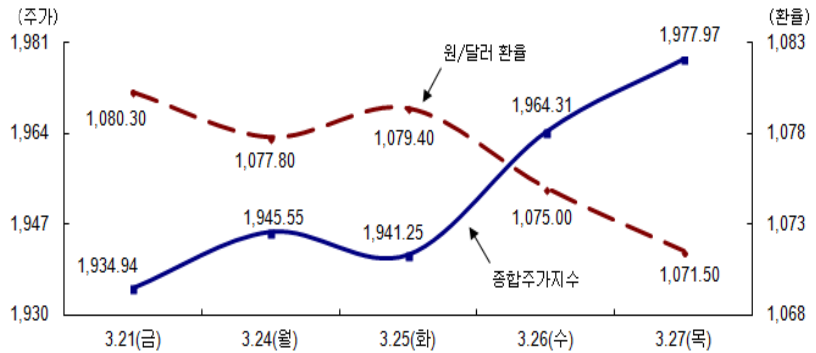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서비스업 생산성 국제 비교와 시사점

週間 主要 經濟 指標 (3.21~3.27)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서비스업 생산성 국제 비교와 시사점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3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2072-6230, swhan@hri.co.kr)
 □ 산업연구본부 : 백 다 미 선임 연구원 (2072-6239, dm100@hri.co.kr)
 주 원 수 석 연구위원 (2072-6235, juwon@hri.co.kr)

Executive Summary

□ 서비스업 생산성 국제 비교와 시사점

■ 개요

서비스업은 부가가치 창출의 50% 이상, 고용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높은 경제적 비중을 고려하여 정부는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내수와 수출 간 균형 발전 및 성장 저변의 확대를 촉진한다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은 서비스업의 외형적 시장 및 산업 규모 확대에 치중되어 있는 반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생산성 향상 노력은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은 경제 내 불균형 해소 및 국가 전체 경제 성장의 핵심이다. 또한 서비스의 교역재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생산성 향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의 서비스업 생산성 수준 및 추이를 선진국과 비교해보고 취약점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서비스업 생산성 국제 비교

(생산성의 의미 및 측정 방법) 생산성은 효율성의 대표적 척도로서 생산 요소 한 단위당 창출된 부가가치로 측정된다. 생산성은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등의 단일요소생산성(partial factor productivity)과 생산요소 간 시너지 효과, 질적 수준, 고려하지 못한 새로운 생산요소 등의 영향에 의해 생산되는 부가가치를 의미하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으로 분류된다.

(노동생산성) 2000년대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미국·일본·독일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2009년 현재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24.6달러로 미국·일본·독일의 약 39% 수준인 반면 서비스업은 시간당 13.3달러로 3개국 평균치의 24%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2000년과 비교한 2009년 생산성 변화는 제조업이 선진국 수준 대비 3%p 개선된 반면 서비스업은 7%p 하락하고 있어 노동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국민소득 2만 달러 대 수준에서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으나 서비스업은 선진국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점에서 한국(2007년)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31.7달러로 미국(1988년)의 23.6달러, 일본(1987년)의 22.2달러보다 높고 독일(1991년)의 32.6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동일한 시점에서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한국이 17.7달러로 미국(34.7달러), 일본(28.1달러), 독일(38.3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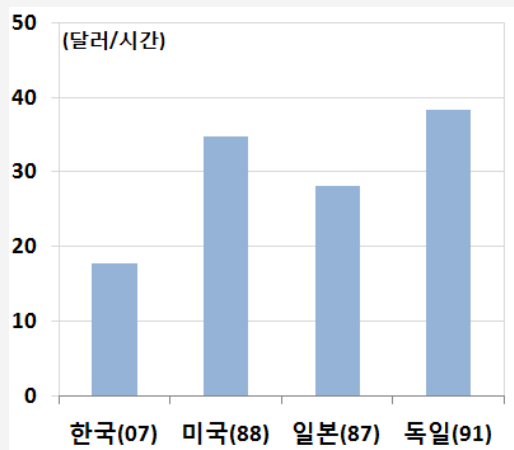
(자본생산성) 2000년대 제조업 자본생산성은 미국·일본·독일과 대등하거나 높은 반면, 서비스업은 열위에 놓여있다. 제조업의 경우 2009년 한국은 자본 1단위를 투입하여 약 0.78단위의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어 미국(0.87단위), 독일(0.79단위, 2007년)과 대등한 수준이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우 한국은 자본 1단위당 0.20단위의 부가가치 생산에 그치고 있어 미국(0.33단위), 일본(0.25단위) 대비 자본생산성이 낮다.

한편, 국민소득 2만 달러 대 수준에서 서비스업의 자본생산성은 선진국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1인당 GNI가 2만 달러를 달성한 시점의 제조업 자본생산성을 비교한 결과, 한국(2007년)은 자본 1단위 투입으로 약 0.80의 제조업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어 미국(1988년)의 0.81, 독일(1991년)의 0.79와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동일 시점에서 서비스업 자본생산성은 한국(2007년)이 0.20으로 미국(1988년)의 0.37, 일본(1987년)의 0.32를 하회한다.

(총요소생산성) 2000년대 제조업 성장에 총요소생산성(TFP)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서비스업은 TFP가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2000년대 한국 제조업의 TFP 기여도는 2.2%p로 미국(3.2%p), 일본(0.5%p), 독일(0.0%p)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 반면, 서비스업의 TFP 기여도는 한국이 -1.1%p로 미국(0.3%p), 일본(-0.02%p), 독일(0.1%p)을 하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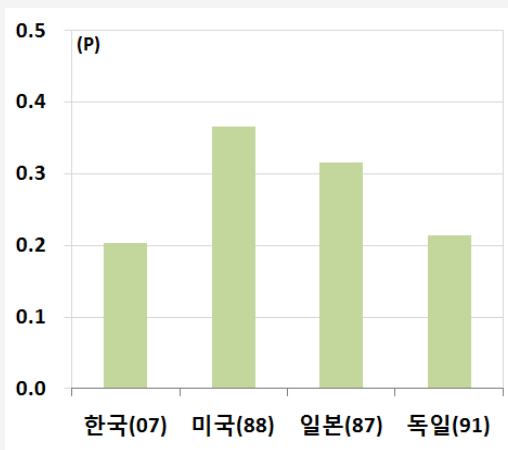
또한, 국민소득 1만~2만 달러대 시기 제조업 성장에 대한 TFP기여도는 선진국 수준이나, 서비스업 TFP는 선진국 대비 취약하다. 해당 기간 제조업의 TFP 기여도는 한국이 2.2%p, 미국 2.0%p, 일본 2.8%p, 독일 1.3%p로 한국과 선진국 간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TFP 기여도는 한국이 -1.1%p로 미국(-0.3%p), 일본(0.3%p), 독일(0.9%p) 대비 열위에 있다.

<주요국 국민소득 2만달러 시기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OECD, EU-KLEM S, 한국은행 통계를 이용).
 주 :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총근로시간, 피고용자 기준, 2005년 불변 가격 기준.

<주요국 국민소득 2만달러 시기의 서비스업 자본생산성>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국제산업연관표 통계를 이용).
 주 : 자본생산성 = 부가가치/자본스톡.

■ 시사점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서비스업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고부가가치형 고용 창출에 주력하고 교육훈련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서비스업 투자 유치를 위해 산업 특성에 맞는 규제 개선, 맞춤형 투자 인센티브 전략 등이 필요하다. 셋째, 서비스업 R&D 투자 확대, IT 활용 및 융합 확대 등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혁신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1. 개요

○ (서비스업의 높은 경제적 비중) 서비스업은 부가가치 창출의 50% 이상, 고용의 약 70%를 담당하는 핵심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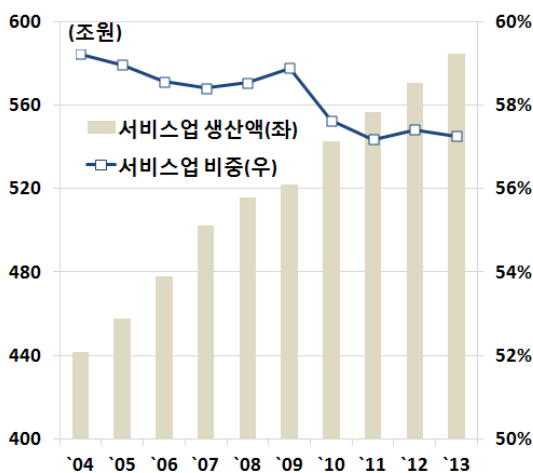
- 서비스업은 연간 부가가치 창출액의 약 57%를 점유하는 경제적 비중이 높은 산업

- 2013년 서비스업 부가가치 창출액은 약 584조 8,546억 원(불변가격 기준)으로 총 부가가치 창출액의 57.3%를 점유
- 일반적으로 경제 구조가 선진화될수록 국가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

- 서비스업은 전체 고용의 약 70%를 담당하는 산업이며 고용흡수력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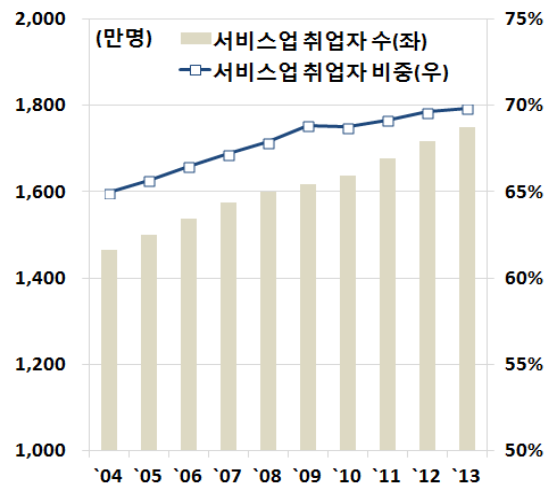
- 2012년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약 1,750만 명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2.0%를 기록하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
- 제조업 취업자 수는 최근 10년간 큰 변화가 없으나 서비스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 산업 대비 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은 2004년 65.0%, 2008년 67.9%, 2013년 69.8%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임

<서비스업 부가가치 생산 비중>



자료 : 한국은행.
주 : 불변가격 기준.

<서비스업 고용 비중>



자료 : 통계청.

- (정부의 서비스업 육성 노력) 내수·수출의 균형 발전 및 성장 저변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정부는 서비스업 육성 과제를 제시
 - 정부는 경제 도약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향후 3년간의 정책 방향을 제시
 - 정부는 고용률 70%와 4%의 잠재성장률 달성 및 국민소득 4만 달러 진입을 목표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
 - 3대 추진 전략으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선정하고 9개 핵심 과제 및 59개 세부 실행 과제를 발표
 - 5대 유망 서비스업 육성, 제조업·서비스업 차별 해소 등 서비스업 발전기반 구축을 통해 내수·수출 균형 경제를 달성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총 59개 세부 실행 과제 중 중 서비스업 육성에 대한 과제가 9개를 점유
 - 세부적으로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을 선정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하며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고 수출 촉진을 도모
 - 또한 세제, 예산, 금융 분야 등 정책 지원에 있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을 해소하고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윈스톱 지원을 실행하는 내용이 포함
-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은 경제 내 불균형 해소 및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의 핵심
 - 정부의 정책 방향은 서비스업 투자 확대를 통한 산업 규모 확대에 집중하여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은 부족하다는 평가
 - 정부의 서비스업 발전 기반 구축 주요 전략은 5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 진출입, 영업 등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 및 외국 자본의 투자 확충에 초점
 -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현재 약 145억 달러에서 2017년 250억 달러 이상 유치하는 등 현재 약 58%에 불과한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2017년 6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 그러나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않고 산업의 외연 확대에만 집중할 경우 서비스업의 장기 경쟁력 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은 경제 내 불균형 해소 및 국가 전체 경제 성장의 핵심
 - 경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인 서비스업의 생산 증가율이 하락할 경우 전체 경제성장률이 서비스업 부문으로 근접하는 ‘보몰의 성장질병(Baumol’s growth disease)’ 현상¹⁾이 나타날 우려
 -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는 소득 격차로 이어지면서 경제 내 불균형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
 - 또한 서비스업이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교역재화가 진행되고 있어 서비스업 경쟁력이 취약할 경우 외국 기업에 시장을 잠식당하고 우리 기업들의 생존마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
 - 따라서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산업 존립의 핵심이 되고 있음
- 이에 선진국과 비교한 한국의 서비스업 생산성 수준 및 추이를 진단해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우선 서비스업 생산성 진단을 위해 노동, 자본 및 총요소생산성을 기준으로 서비스업 생산성을 추정한 후,
 - 주요 선진국인 미국, 일본, 독일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서비스업 생산성 수준을 진단
 - 또한 한국이 현재 1인당 소득 수준 2만 달러 수준에 있음을 고려,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1인당 소득 2만 달러 시점에서의 서비스업 생산성을 비교

1) ‘보몰의 성장질병(Baumol’s Growth Disease)’은 부문간 성장이 불균형적으로 진행되면 침체된 부문으로 자원의 재분배가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의 성장이 저해된다는 이론(Baumol(1967), Baumol et al(1985) 참조).

2. 서비스업 생산성 국제 비교

(1) 생산성의 의미 및 추정 방법

- 생산성은 생산 요소 한 단위당 창출된 부가가치로 효율성의 대표적 척도

$$\cdot \text{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생산요소 투입량}}$$

· 생산성이란 생산요소 한 단위 투입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의미함

- 생산성은 생산요소의 구분에 따라 노동, 자본 및 총요소생산성으로 분류

· 투입되는 개별 생산요소량에 따라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의 단일요소생산성(partial factor productivity)과,

· 생산요소 투입량간의 시너지 효과, 생산요소의 질적 수준, 고려하지 못한 새로운 생산요소 등의 영향에 의해 생산되는 부가가치를 의미하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으로 구분됨

- 노동, 자본 및 총요소생산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근거해 측정

· 노동생산성은 다른 생산요소 투입이 불변이라는 가정 하에서 부가가치를 노동투입량을 나눈 것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노동투입량을 총근로시간으로 정의

· 자본생산성은 다른 생산요소 투입이 불변이라는 가정 하에서 부가가치를 자본투입량을 나눈 것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자본투입량에 자본스톡을 이용하여 분석

· 총요소생산성은 부가가치증가율에 각 생산요소의 분배율이 가중된 요소투입증가율을 차감함으로써 나타나는 잔차로 측정되며 본 보고서에서는 노동과 자본만을 생산요소로 가정

< 생산성 측정 방법 >

$$\cdot \text{노동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노동투입량}}$$

$$\cdot \text{자본생산성} = \frac{\text{부가가치}}{\text{자본투입량}}$$

$$\cdot \text{총요소생산성} = \text{부가가치증가율} - (\text{노동분배율} \times \text{노동투입증가율}) - (\text{자본분배율} \times \text{자본투입증가율})$$

(2) 노동생산성 국제 비교

○ 최근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미국·일본·독일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소득 2만 달러 시점에서 선진국 수준을 크게 하회

○ (최근 노동생산성 비교) 2000년대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제조업과 달리 미국·일본·독일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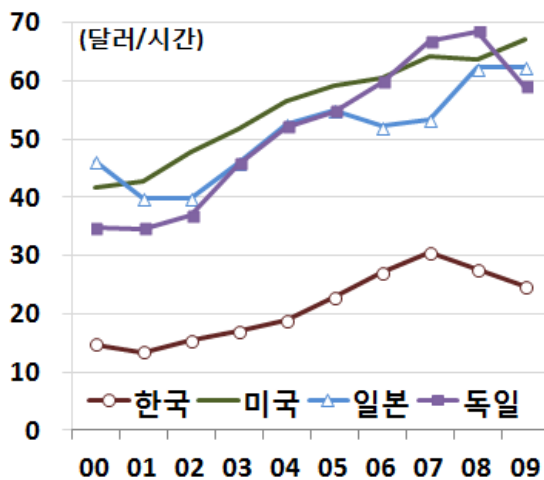
- 2009년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미·일·독의 약 39% 수준인 반면 서비스업은 24% 수준

- 한·미·일·독의 노동생산성(이하 피고용자 근로시간당 부가가치 생산액, 2005년 불변가격 달러 기준)을 추정한 결과, 2009년 현재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은 시간당 24.6달러로 3개국 평균치인 62.8달러의 39% 수준을 기록한 반면,
-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시간당 13.3달러로 3개국 평균치인 55.3달러의 24%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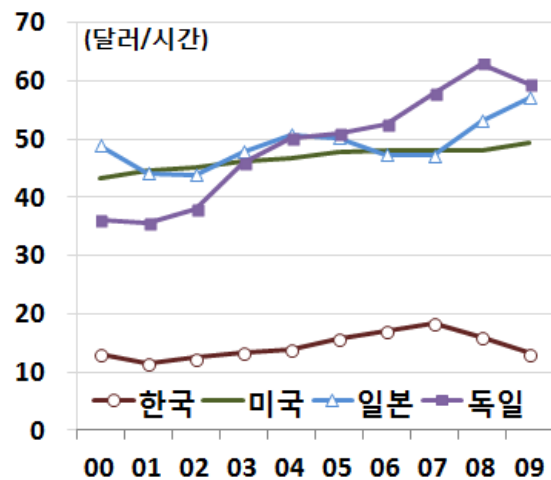
- 비록, 경기, 환율 요인의 영향이 있겠으나 2000년과 비교한 2009년 생산성 변화는 제조업이 선진국 대비 3%p 개선된 반면 서비스업은 7%p 하락

- 한국 제조업 생산성/미·일·독 제조업 생산성 비율은 2000년 36%에서 2009년 39%로 상승한 반면,
- 한국 서비스업 생산성/미·일·독 서비스업 생산성 비율은 2000년 31%에서 2009년 24%로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임

<한·미·일·독 제조업 노동생산성>



<한·미·일·독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OECD, 한국은행 통계를 이용).

주 :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총근로시간, 피고용자 기준, 2005년 불변 가격 기준.

○ (국민소득 2만 달러 시기의 노동생산성 비교)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의 2만 달러 대 수준과 유사하나 서비스업은 선진국 수준을 크게 하회

-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점에서 한국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미·일·독 수준을 상회하거나 비슷한 반면 서비스업은 크게 미치지 못함

· 1인당 GNI가 2만 달러를 달성한 시점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한국(2007년)이 31.7달러로 미국(1988년)의 23.6달러, 일본(1987년)의 22.2달러보다 높고 독일(1991년)의 32.6달러와 비슷한 수준임

· 그러나 동일한 시점에서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한국이 17.7달러로 미국(34.7달러), 일본(28.1달러), 독일(38.3달러)에 미치지 못 하는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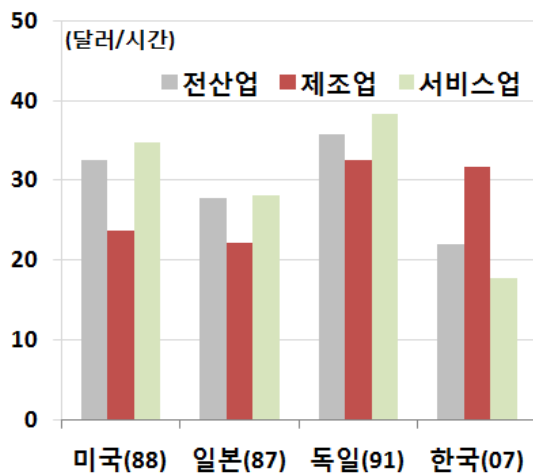
- 한국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G7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후의 추세에서도 크게 벗어나 있는 것으로 분석

· G7 국가들은 1인당 국민소득과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간 움직임에 밀접한 연관성이 관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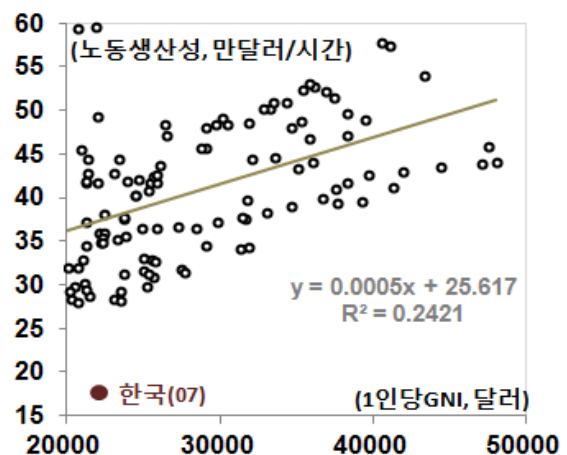
· G7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대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최저 수준은 약 28달러로 추정되고 있어 현재 한국의 20달러 내외 수준*보다 큰 격차를 나타냄

※ 불변 가격기준 달러 베이스 한국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2007년 약 18달러, 2009년 약 13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2010년 이후 경기 반등 및 환율 절상 효과를 고려하면 현재 약 20달러 내외로 추정됨

<주요국 국민소득 2만달러 시기의 산업별 노동생산성>



<G7국가의 국민소득과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OECD, EU-KLEMS, 한국은행 통계를 이용).

주 :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총근로시간, 피고용자 기준, 2005년 불변 가격 기준.

(3) 자본생산성 국제 비교

○ 최근 서비스업 자본생산성은 미국·일본 대비 열위에 있으며 국민소득 2만 달러 시점에서도 선진국 수준을 크게 하회

○ (최근 자본생산성 비교) 2000년대 서비스업 자본생산성은 미국·일본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며 제조업과의 격차가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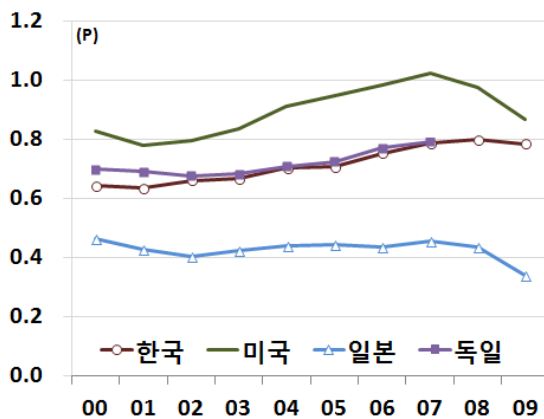
- 2009년 현재 국내 제조업 자본생산성은 미·일·독 수준과 대등하거나 우위의 경쟁력을 확보

- 자본계수²⁾의 역수인 '부가가치/자본스톡'을 이용하여 각 국의 산업별 자본생산성(이하 자본스톡당 부가가치 생산액, 1995년 불변가격 기준)을 추정
- 제조업의 경우 2009년 한국은 자본 1단위 투입으로 약 0.78단위³⁾의 부가가치를 생산하여 미국의 0.87단위, 독일의 0.79단위(2007년)와 대등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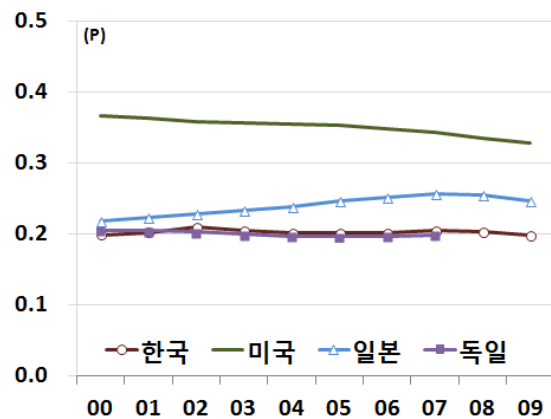
- 그러나 서비스업 자본생산성은 미·일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며 제조업과의 격차가 심화되는 추세

- 서비스업의 경우 2009년 한국은 자본 1단위 투입으로 약 0.20단위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반면, 미국은 0.33단위, 일본은 0.25단위의 부가가치 생산
- 그러나 한·미·일·독 모두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낮은 자본생산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을 제외한 3국은 제조업과의 격차가 심화되는 추세

<한·미·일·독 제조업 자본생산성>



<한·미·일·독 서비스업 자본생산성>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국제산업연관표 통계를 이용).

주 : 자본생산성 = 부가가치/자본스톡, 1995년 불변 가격 기준.

2) 자본계수(=자본스톡/부가가치)는 부가가치 1단위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본스톡을 의미.

3) 자본 100달러 투입으로 약 78달러의 부가가치를 생산함을 의미.

○ (국민소득 2만 달러 시기의 자본생산성 비교) 제조업 자본생산성은 선진국의 2만 달러 대 수준과 유사하나 서비스업은 선진국 수준을 크게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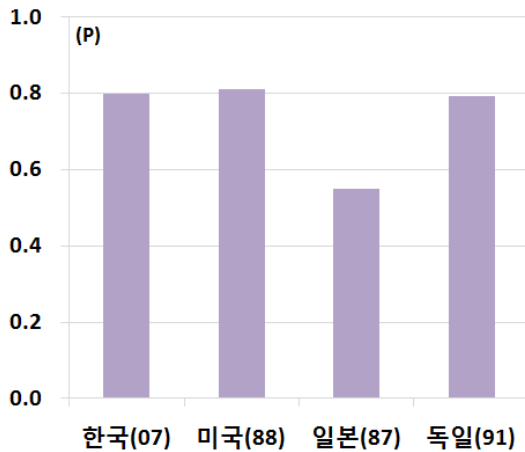
-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점에서 한국의 제조업 자본생산성은 미·일·독 수준을 상회하거나 대등한 수준⁴⁾

- 1인당 GNI 2만 달러 달성 시점의 제조업 자본생산성을 비교한 결과, 한국(2007년)은 자본 1단위 투입으로 약 0.80단위의 제조업 부가가치를 생산
- 이는 미국(1988년)의 0.81단위, 독일(1991년)의 0.79단위와 비슷한 수준이며 일본(1987년)의 0.55단위를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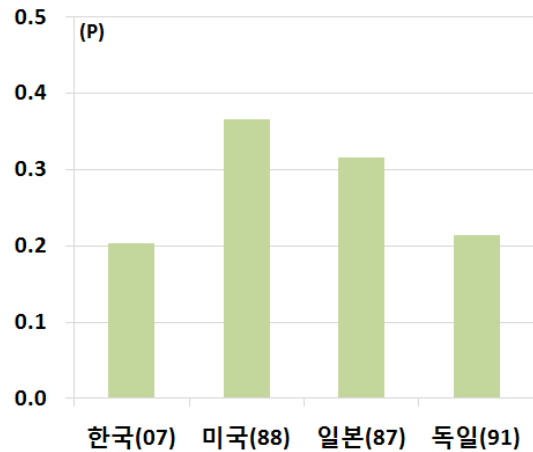
- 반면 동일 시점에서 서비스업 자본생산성은 미·일·독 수준을 크게 하회

- 1인당 GNI 2만 달러 달성 시점의 서비스업 자본생산성을 비교한 결과, 한국(2007년)은 자본 1단위 투입으로 약 0.20단위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생산
- 이는 미국(1988년)의 0.37단위, 일본(1987년)의 0.32단위를 하회하고 있으며 독일(1991년)과는 유사한 수준

<주요국 국민소득 2만달러 시기의 제조업 자본생산성>



<주요국 국민소득 2만달러 시기의 서비스업 자본생산성>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국제산업연관표, EU-KLEMS 통계를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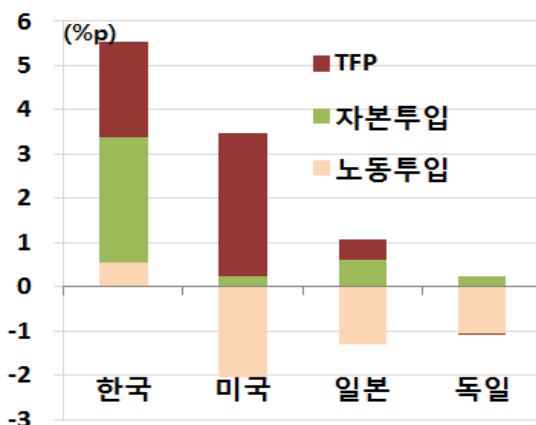
주 : 자본생산성 = 부가가치/자본스톡.

4)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본스톡 통계는 EU-KLEMS와 WIOD(국제산업연관표)의 자료를 동시에 사용. 산업분류 ISIC Rev.3을 기준으로 EU-KLEMS는 1970년대~2005년까지의 자료를, WIOD에서는 EU-KLEMS의 자료를 활용하여 1995~2009년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2000년대 자본생산성 분석을 위해 기본적으로 WIOD의 자료를 이용했으나,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점의 분석을 위해서는 1995년 이전 자료가 필요하여 EU-KLEMS 자료를 활용함. 참고로 EU-KLEMS 자료를 이용한 한국의 2005년 자본생산성은 제조업이 약 0.60단위, 서비스업이 0.18단위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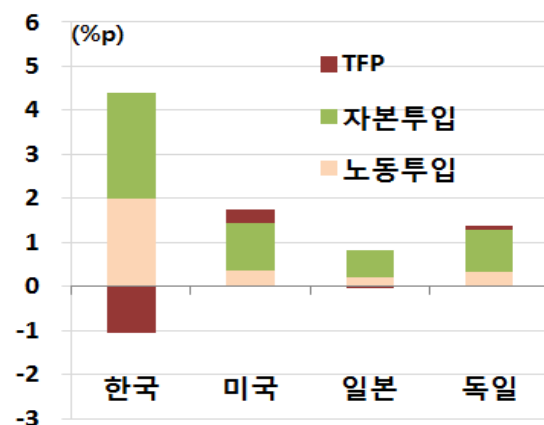
(4) 총요소생산성 국제 비교

- 최근은 물론 국민소득 1만~2만 달러대 시기에서 한국 서비스업 총요소생산성은 미국, 일본, 독일 대비 취약
- (최근 TFP 비교) 2000년대 제조업 성장에 총요소생산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서비스업은 오히려 총요소생산성이 산업 성장을 방해
 - 2000년대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에 대한 TFP(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한국이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 뒤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
 - 2000년대 한국 제조업 부가가치증가율 5.5%중 생산요소별 기여도는 노동투입이 0.6%p, 자본투입 2.8%p, TFP 2.2%p를 기록함
 - 같은 시기 미국의 제조업에 대한 TFP 기여도는 3.2%p, 일본은 0.5%p, 독일은 0.0%p로 나타남
 - 2000년대 서비스업 부가가치 증가율에 대한 TFP 기여도는 미국과 독일이 양(陽, +)의 값을 한국은 음(陰, -)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
 - 2000년대 서비스업 부가가치증가율에 대한 TFP 기여도는 한국 -1.1%p, 미국 0.3%p, 일본 -0.02%p, 독일 0.1%p를 기록함
 - 이를 TFP 기여율(TFP기여도/부가가치증가율)로 보면 한국 -31.3%, 미국 17.6%, 일본 -2.5%, 독일 6.6%임

<최근 주요국 제조업 부가가치증가율의 요소별 기여도(2000년대)>



<최근 주요국 서비스업 부가가치증가율의 요소별 기여도(200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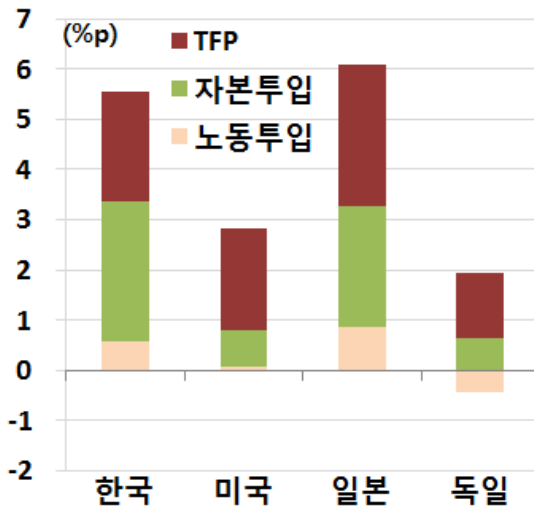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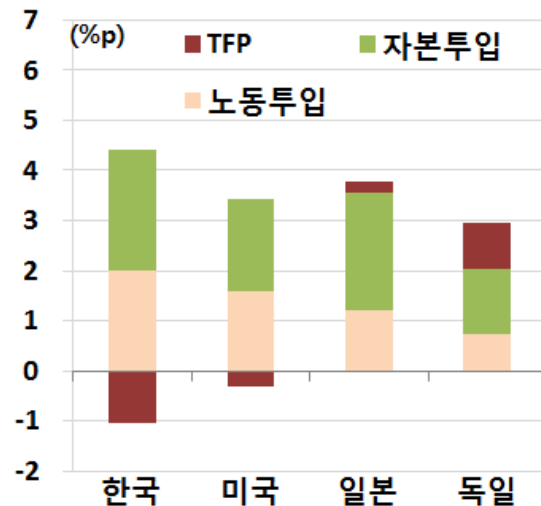
주 : 미국은 2001~10년, 나머지 국가는 2001~09년.

- (국민소득 1만~2만 달러 시기의 TFP 비교) 제조업 성장에 대한 TFP 기여도는 선진국 수준이나, 서비스업 TFP는 선진국 대비 열위
 - 국민소득 1만~2만 달러 시기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에 대한 TFP(총요소생산성)기여도 비교에서 한국이 주요국에 비해 뒤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
 - 2001~2009년 한국 제조업 부가가치증가율 5.5%중 생산요소별 기여도는 노동투입이 0.6%p, 자본투입 2.8%p, TFP 2.2%p를 기록함
 - 국민소득 1만~2만 달러 시기 제조업에 대한 TFP 기여도는 미국 2.0%p, 일본은 2.8%p, 독일은 1.3%p로 한국과 유사한 수준임
 - 그러나 같은 기간 서비스업 부가가치 증가율에 대한 TFP 기여도는 한국이 크게 뒤쳐져 있는 것으로 분석
 - 2001~2009년 한국 서비스업 부가가치증가율 3.4%중 생산요소별 기여도는 노동투입이 2.0%p, 자본투입 2.4%p, TFP -1.1%p를 기록함
 - 반면 주요국의 국민소득이 1만~2만 달러에 속해있는 1981~1990년 사이 미국의 서비스업에 대한 TFP 기여도는 -0.3%p, 일본은 0.3%p, 독일은 0.9%p로 한국과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함

<국민소득 1~2만 달러 시기의 주요국 제조업 요소별 기여도>



<국민소득 1~2만 달러 시기의 주요국 서비스업 요소별 기여도>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주 : 1) 한국은 2001~2009년, 나머지 국가는 1981~1990년.

2) 국민소득 1만 달러 진입 연도 : 한국('95), 미국('79), 일본('81), 독일('79).

3) 국민소득 2만 달러 진입 연도 : 한국('06), 미국('88), 일본('87), 독일('90).

3. 시사점

- 생산 방식이 기술 및 자본 집약화 될수록 제조업에만 의존하는 성장은 한계에 봉착하기 때문에, 경제적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에 기인한 부가가치 창출력 확대가 필요하다.

첫째, 서비스업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고부가가치형 고용 창출에 주력하고 교육훈련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 자본이 생산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산업 구조 변화 및 제조업의 해외 진출 증가로 발생한 유희 노동력이 사전 준비 없이 서비스업으로 흡수될 우려
- 고부가가치형 고용 창출 및 직무 홍보, 취업 알선 프로그램 개발, 재취업자의 교육훈련 지원 등을 통해 전체 고용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서비스업 내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

둘째, 서비스업 투자 유치를 위해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투자 인센티브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성으로 인해 노동력의 추가 투입만으로는 생산성 증가에 한계가 있으므로 서비스업의 추가적인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는 자본 투입 증가가 수반되어야 함
- 서비스업 투자 제고를 위해 세제 혜택, 자금 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제조업과 구분되는 서비스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심사 기준을 설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필요
 - 서비스업은 업종 특성상 제조업 대비 설비투자가 적어 세제 혜택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투자세액공제율 차등 적용이 필요
 - 서비스업은 제조업 대비 자산 담보 가치가 작아 자금조달 여력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업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증 및 대출 심사 기준 정비

셋째, 서비스업 R&D 투자 확대, IT 활용 및 융합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혁신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 정부의 서비스업 R&D 지출을 확대하고 민간 R&D 지출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 요인을 제공하여 서비스업의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
- 도·소매 서비스, 금융 서비스, 사업 서비스 등 IT 산업과 연관성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의 IT 이용을 촉진
 - 영세 서비스 기업에 대해서는 정보화투자,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을 보다 확대
- 서비스업과 제조업, IC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제조업의 생산 효율성이 서비스업으로 전파될 수 있는 통로를 확보 **HRI**

백다미 선임연구원 (dm100@hri.co.kr, 02-2072-6239)

주 원 수석연구위원 (juwon@hri.co.kr, 02-2072-6235)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8	3.7	1.2	2.8	0.1	1.9	1.1	2.5	4.1	3.2	2.8
유로 지역	-0.6	-0.1	-0.3	-0.1	-0.5	-0.4	-0.2	0.3	0.1	0.3	1.0
일본	2.0	3.7	-1.7	-3.1	-0.2	1.7	4.8	3.9	1.1	1.0	1.7
중국	7.7	8.1	7.6	7.4	7.9	7.7	7.7	7.5	7.8	7.7	7.5

주 1) 2013년, 2014년 전망치*는 IMF 2014년 1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3월 20일	3월 27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70	2.46	3.03	2.77	2.68	-0.09%p
	엔/달러	85.86	98.51	105.04	102.41	102.06	-0.35¥
	달러/유로	1.3222	1.3031	1.3799	1.3823	1.3781	-0.0042\$
	다우존스지수(p)	12,938	14,910	16,577	16,331	16,264	-67p
	닛케이지수(p)	10,395	13,677	16,291	14,224	14,623	399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2.82	2.88	2.86	2.87	2.88	0.01%p
	원/달러(원)	1,070.6	1,142.0	1,055.4	1,076.2	1,071.5	-4.7원
	코스피지수(p)	1,997.1	1,863.3	2,011.3	1,919.5	1,978.0	58.5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3월 20일	3월 27일		
국제 유가	WTI	90.89	96.52	98.55	99.32	101.28	1.96\$
	Dubai	107.99	100.38	107.88	103.47	104.04	0.57\$
CRB선물지수	294.78	275.62	280.17	300.17	304.65	4.48\$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2014(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7	2.5	2.1	2.3	2.4	3.5	3.0	3.8
	민간소비 (%)	2.9	1.2	2.6	1.9	1.9	2.1	2.0	2.7
	건설투자 (%)	-3.4	-3.2	-4.6	-3.9	6.4	7.0	6.7	2.5
	설비투자 (%)	4.7	4.3	-4.1	0.1	-8.3	6.2	-1.5	6.7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261	163	317	481	298	410	707	490
	무역수지 (억 달러)	308	109	174	283	200	241	441	370
	수출 (억 달러)	5,552	2,750	2,729	5,479	2,765	2,832	5,596	6,067
	(증가율, %)	19.0	0.5	-3.1	-1.3	0.5	3.8	2.1	8.4
	수입 (억 달러)	5,244	2,641	2,555	5,196	2,565	2,591	5,156	5,697
	(증가율, %)	23.3	2.3	-4.0	-0.9	-2.9	1.4	-0.8	10.5
소비자물가 (평균, %)	4.0	2.7	1.7	2.2	1.4	1.2	1.3	2.4	
실업률 (평균, %)	3.4	3.5	2.9	3.2	3.4	2.9	3.1	3.1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8	1,142	1,112	1,127	1,104	1,086	1,095	1,07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